

8년간에 걸친 이란·이라크전쟁이 잠잠한
 가 했더니 다시금 이라크의 쿠웨
 이트 침공으로 中東지역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中東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또다시 제3차 석유
 위기가 오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70년대 1, 2차 석유위기때 거의 무방비상태에서

쿠웨이트사태와 高油價시대

석유파동을 맞은 경험이 있고 보면 벌써부터 가슴
 죄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석유비축과 공급물량이 충분해 中東사태가
 악화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유가폭등은 없을 것이라
 는 관측도 있기는 하다. 또 그동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 놓아 국제유가가 오르더라
 도 그 파장이 종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中東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원만히 수습되더라도 OPEC(석유수출국기
 구)내에서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돼 高油價추세는
 필연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더군다나 궁지에 몰린 이라크가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
 이다.

석유의 예언은 「창세기」에 들어있다. 사막에 불기
 둥이 치솟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걸 어쩌면 베드
 원쪽에 내린 하느님의 축복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항상 페르시아만의 파도는 잠잠할 날이
 없었다.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갈등과 대립은
 끝이 없었다. 흔히 아랍인들의 기도는 「인슈알라」
 로 시작된다. 그것은 「알라신의 뜻대로」라는 뜻이
 다. 「中東의 亂」을 일으킨 이라크의 후세인 입에서
 도 이 말이 거침없이 나왔다. 백만대군을 보유한
 이라크는 아랍 제일의 군사강국이다. 그가 「中東의
 히틀러」로 불리는 것도 당연하다.

석유위기가 발생하는 조건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는 에너지수요, 특히 석유수요가 높은 수준에 있거
 나 증가추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두번째는 경제외적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조건, 다시 말해 정치적·군사적 조건에 의해 석유 공급의 상당부분이 저해받는 상황의 발생이다. 이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석유위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지난 '70년대의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통해 실제로 경험한 바 있다.

제3차 석유위기가 당장 올 것이냐는 아직 속단기 어렵다. 만에 하나라도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을 넘거나, 美軍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석유위기는 필연적이다. 또 이라크의 석유수출을 봉쇄하는 경제제재조치가 장기화돼도 油波가능성은 높다. 전문가들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원유공급량 하루 4백20만배럴의 수송로가 차단 되면 세계원유물동량(5천3백만B/D)의 8% 공급부족 현상이 생겨 향후 1년간은 배럴당 35달러까지, 그 이후엔 40달러까지 원유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擴戰 없이 경제제재조치만 하게 되면 그 쇼크의 증폭은 지난 1, 2차 석유위기 때 같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란, 베네수엘라가 그 부족분 일부를 증산으로 메우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 위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증산에 가담하면 부족물량은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서강대국들이 전례없이 中東사태에 공동대처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걱정을 다소 덜어주는 근거다. 또 지난 '70년대의 두차례 석유위기는 산유국들의 공급거부로 일어났지만, 이번엔 수입거부로 일어난 것이만큼 해결이 쉬울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석유공급이 차단돼 비록 단기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선까지 올라간다 해도 곧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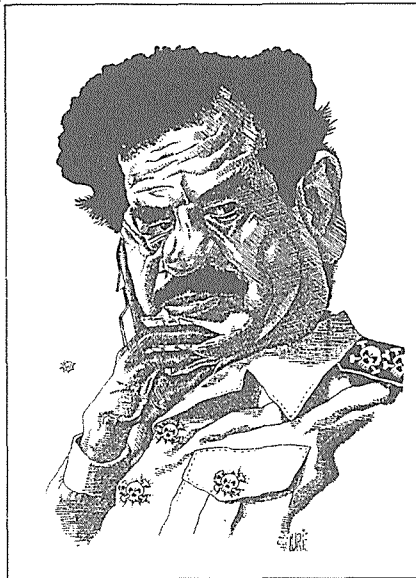
어찌 됐든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국제원유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의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사태도 低油價에 대한 이라크의 불만에서 시발되었던만큼 쿠웨이트사태가 수습돼도 원유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제 10달러대의 低油價시대는 다시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쿠웨이트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원유가격이 연말까지 배럴당 21~23.5달러로 7월말보다 4~6.5달러 오르고, 그러나 사태가 단기간안에 해결된다면 유가는 배럴당 2.5~4달러 상승에 그친 배럴당 19.5~21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유가전망은 OPEC회원국들이 지난 7월말 제87차 총회에서 조정된 각국의 하반기 산유쿼터를 준수할 것을 기본전제로 한 것이다.

'90년대 국제석유시장의 여건은 초반부터 불안한 요인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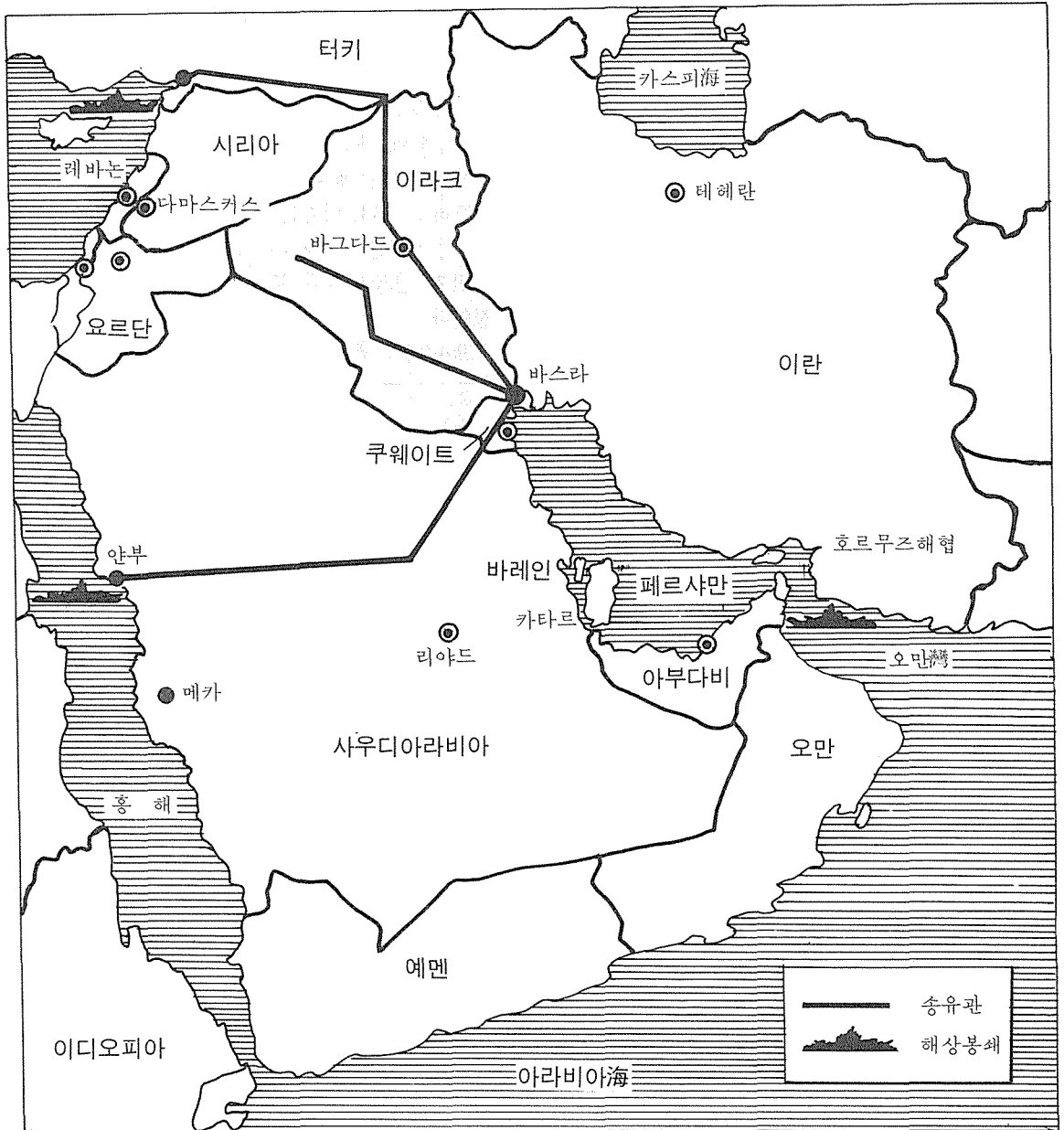
이번 쿠웨이트사태를 계기로 3~4년전부터 예상되어온 '95년 전후의 제3차 석유위기가 中東사태의 진전여하에 따라서는 의외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제3의 석유위기에 대하여 우리가 신중하게 유념해야 할 사항은 그것이 과연 1, 2차 석유위기때와 같이, 단시일내의 가격폭등과 공급중단을 수반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OPEC가 2차 위기



때의 틀을 재현시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OPEC의 석유가격은 非OPEC산유국의 원유개발·생산비의 상승률에 따라 완만하게 오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볼 때 이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이용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 에너지원들은 OPEC產 원유에 대하여 경쟁자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 물론 최근의 쿠웨이트사태처럼 예측불허의 돌발사태 때문에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과거처럼 돌발사태로 인하여 유가의 기본구조가 장기간 왜곡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돌발사태의

이라크 석유수출로



위험까지 시장의 기능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예 : 원유비축)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90년대의 석유위기는 가격폭등의 위험보다는 가격과 석유의존도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의 증가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때 세계의 석유시장은 소수의 대규모 산유국의 정기전략에 의하여 지배될 것이며, 특히 주요 소비국의 환경문제등에 대한 우유부단한 태도는 석유

와 천연가스의존도를 전세계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생산이 전무한 나라는 어느때 보다도 과도한 석유의존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油波가 오든 안오든 이제 에너지절약은 또다시 우리의 지상과제가 되었다. 그 사이 우리는 석유에 대한 관심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 왔다. '80년대 후반기의 총에너지소비증가율은 전반기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금년 5월말까지의 증가율도 14.7%로 '89년 같은 기간의 8.3%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89년 이후 총에너지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의 에너지소비증가는 산업 및 수송부문의외에 가중·상업부문에서도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소비경향이 생산부문이 아닌 소비성부문에서 고급에너지 중심으로 급증하는등 過소비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에너지소비증가는 주로 석유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총에너지중 석유비중은 다시 1, 2차석유위기때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제2차 석유위기를 고비로 감소하던 총에너지중 석유비중은 '89년에 49.6%, '90년 1~5월에는 53.9%로 급증했다. 에너지소비는 제2차 석유위기이후 소득보다 가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지난 '86년 이후의 계속적인 유가인하가 최근의 소비급증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원유가격처럼 불확실한 것은 없다. 국제석유시장에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가지 비경제적 변수가 서로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이 그 좋은 예이다. 이제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것이 국제석유문제의 요체요, 속성이다. 中東사태는 高油價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었다.♣

